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에 나타난 이미지의 상징성*

박민영**

|| 차례 ||

1. 시작하는 말
2. 작가와 독자, 주인공인 세 여성
3. 파티와 음식의 상징적 의미
4. 어긋난 사랑과 죽음, 그리고 자유
5. 맺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영화 <디 아워스>에 나타난 이미지의 상징성을 원작소설 『세월』과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달러웨이 부인』과의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영화의 주인공인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지만, 소설 『달러웨이 부인』으로 연결돼 있다. 버지니아는 소설을 집필하며, 로라는 그 소설을 읽고, 클라리사는 소설의 주인공인 달러웨이 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영화는 교차편 집으로 마치 세 여성이 동시에 같은 날을 사는 것처럼 보여준다. 이때 나타나는 영상 이미지의 유사성과 반복성은 이 영화의 가장 큰 개성으로, 필자는 이 이미지들의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주인공의 정서와 심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했다.

세 여성이 준비하는 파티는 분열된 내면의식을 연결하고,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일종의 상징적 의식이다. 이러한 파티를 위해 세 여성이 마련하는 음식은 자아의 확장, 즉 그들 내면의 심리상태를 함축한다. 파티의 방문객은 주인공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원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편에 흐르는 동성애적인 코드는 고정된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유를 열망하는 주인공들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mypark7635@sungshin.ac.kr

의 내면의식을 상징한다.

영화 <디 아워즈>를 일관하는 주제는 죽음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살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면서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죽음이 번주되고 있다. 주인공들에게 죽음은 어긋난 사랑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며, 삶의 소중함은 죽음과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인식된다. 이것은 원작소설 『세월』의 주제이자,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주제이기도 하다.

영화 <디 아워즈>의 가장 큰 미덕은 영상적 이미지의 병치와 번주를 통해 주인공인 세 여성의 같거나 다른 정서와 심리상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영상 이미지의 상징성은 영화를 보다 심도있게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디 아워즈>, 『델러웨이 부인』, 버지니아 울프, 상징성, 파티, 음식, 죽음

1. 시작하는 말

이 논문은 영화 <디 아워즈(The Hours)>(2002)¹⁾에 나타난 이미지의 상징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자살 장면으로 시작한다.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는 1941년 59세의 나이로 우즈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이야기는 일정부분 실화에 근거한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살 장면 이후 영화 속 시간은 바뀌어 1951년 미국 로스 앤젤레스, 1923년 영국 리치몬드, 그리고 2001년 미국 뉴욕 시를 배경으로 세 여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사는 이 여성들은 각각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화는 교차편집으로 세 여자가 마치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여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옆에

1) 스티븐 달드리 감독. 니콜 키드먼·줄리안 무어·메릴 스트립 주연. 2003년 골드 글로브 최우수 작품상·여우주연상, 제57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니콜 키드먼·줄리안 무어·메릴 스트립이 여우주연상을 공동수상했다.

자명종이 울리자, 연이어 버지니아의 집에 오래된 괘종시계가 종을 치고, 또 다른 여자의 집에는 탁상시계가 전자음을 낸다. 교차편집을 통한 유사한 이미지의 병렬적 연결은 한 세대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여자들이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전한다.

영화에서 공통분모가 되는 하나의 이미지는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다른 인물의 성격을 반영하며 변용된다. 위에서처럼 세 여자는 ‘시계’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되고, 각기 다른 시계의 종류로 구분된다. 낡고 둔탁한 괘종시계가 1920년대 영국의 갑갑한 전통을 상징하고 있다면, 짜증스럽게 울리는 자명종은 195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정에 스며있는 우울과 권태를, 전자식 알람시계는 2000년대 뉴욕 시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제각기 상징한다.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특정한 정서나 심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²⁾

영화 <디 아워스>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상 텍스트에 나타난 같거나 다른, 혹은 뒤섞인 이미지들의 상징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이 영화가 마이클 커닝햄(Michael Cunningham)의 동명소설 *The Hours*(1998)³⁾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커닝햄의 소설은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달러웨이 부인(Mrs. Dalloway)』을 이야기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상 이미지의 분석은 앞의 두 소설과의 상호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화 <디 아워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세월』⁴⁾과 『달러웨이 부인』과의 관련성,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김정, 정명희, 곽현주, 김상률, 고현철

2) “문학적 상징은 내적 상태의 외적기호다. 다시 말하면 불가시적인 것을 암시하는 가시적인 것이 상징이다. 이 경우에 불가시적인 것은 원관념이고, 가시적인 것은 보조관념이 된다. (...) 상징에서 숨어있는 원관념, 즉 불가시적인 것은 대개 관념이고 또 관념을 중시하지만 반드시 관념만 원관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서일 수도, 심리적 내용일 수도, 이념적 세계일 수도 있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196면.

3) 1999년 펜포크너상·폴리처상 수상. *The Hours*는 우리나라에서 정명진 번역의 『세월』(생각의 나무, 1999)로 출간됐다. 이 글에서는 위의 책을 텍스트로 한다.

4) *The Hours*라는 동명의 영화와 소설을 구별하기 위해 영화는 <디 아워스>, 소설은 『세월』로 표기하겠다.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논문들은 영화 <디 아워스>의 페미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소설과 소설, 소설과 영화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⁵⁾

영화에 논의를 집중한 연구로는 이지아와 황성찬, 박인영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지아는 영화 <디 아워스>를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으며,⁶⁾ 황성찬은 베르그송과 바슐라르의 이론을 원용하여 시간의식을 분석했고,⁷⁾ 박인영은 <디 아워스>의 ‘오프닝 시퀀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⁸⁾ 이상윤과 황진희 등은 필립 글래스(Philip Glass)가 작곡한 OST를 텍스트로 인물의 심리와 음악의 상관성을 논했다.⁹⁾

이 영화는 문학교육, 혹은 읽기와 쓰기 교육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되기도 했다. 정현숙은 영화 <디 아워스>의 감상을 통한 문학 강의 사례를 소개했으며,¹⁰⁾ 황영미는 대학의 교양과목인 ‘사고와 표현’ 강의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에 이 영화를 활용했다.¹¹⁾

- 5) 김정, 「내포에서 외연으로: 소설 『시간들』에서 영화 <디 아워스>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9-1, 2003; 정명희, 「다시 쓰는 『델러웨이 부인』」, 『제임스 조이스 저널』 9-1, 2003; 광현주, 「버지니아 울프의 페미니즘과 여성의 글쓰기 연구: 『델러웨이 부인』과 『디 아워스』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상률, 「울프와 함께 춤을-세 예술가의 텍스트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와 상호텍스트성」, 『문학과 영상』 6-2, 2005; 고현철, 「소설 『디 아워스』와 영화 <디 아워스>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과 그 해석」, 『문학과 영상』 8-3, 2007.
- 6) 이지아, 「스테판 달드리의 『디 아워스』에 나타난 페미니즘」.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3.
- 7) 황성찬, 「지속과 순간의 영화적 변용: <디 아워스>와 <매그놀리아>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7.
- 8) 박인영, 「<디 아워스>의 오프닝 시퀀스 연구」, 『영화연구』 59, 2014.
- 9) 이상윤, 「영화와 주제음악의 형식적 관계성에 관하여: 영화 <디 아워스>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40, 2010; 황진희, 「심리변화에 따른 음악의 특징: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논문, 2014; 황진희 외,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에서의 인물심리와 화음진행의 상관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 2014.
- 10) 정현숙, 『영화로 이해하는 윌리엄 포크너와 버지니아 울프 - <시민 케인>과 <디 아워스>-」, 『영미어문학』 82, 2007.
- 11) 황영미, 「읽기와 쓰기의 상호텍스트성 교육 연구-마이클 커닝햄의 『세월』과 영화

이렇게 영화 <디 아워스>는 문학과 영화학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됐으며, 최근에는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여겨지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교하게 직조된 영상 텍스트를 하나하나 풀어서 읽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화 <디 아워스>에 나타난 이미지의 상징성을 먼저 원작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아울러 영화 안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리웨이 부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영화 안에 제시된 다양한 이미지들의 공통분모를 추출하고, 그것으로 연결된 이미지들의 변용 양상을 상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상상력의 세계를 가늠하고, 나아가 영상 텍스트를 보다 풍요롭게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 기대한다.

2. 작가와 독자, 주인공인 세 여성

이 영화의 원작은 마이클 커닝햄의 동명의 소설 『세월』이다. 영화의 첫 장면인 버지니아 울프의 자살은 원작에서 프롤로그로 처리된다.

그녀는 집을 나서서 일을 재촉하고 있다. 날씨에 비해 지나치게 두터운 코트를 걸치고서. 때는 1941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레너드 앞으로 찢막한 편지 하나를 남겼다. 바네사 앞으로 쪽지를 남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결단을 내고야 말겠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너무도 잘 안다는 표정으로, 강을 향해 가고 있다.¹²⁾

원작소설에서는 1941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뒤에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자리

<디 아워스>를 중심으로-, 『사고와 표현』 9-1, 2016.

12) 마이클 커닝햄, 앞의 책, 9면. 앞으로 이 책에 대한 인용은 인용문 뒤에 책 이름과 페이지만 명기하겠다.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죽기위해 집을 나서는 여성 작가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폭격기들이 하늘에 나타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떠난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작가로서의 절망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남긴 유서에는 서서히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데서 오는 두려움과 작가로서 실패했다는 자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다음은 소설에 나온 버지니아의 유서로,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가 남긴 유서와 동일하다.

여보,
또다시 미치고 말거라는
확신이 느껴져요. 한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이제는 잘 넘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요.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의 길을 찾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복을 주었어요.
(...) 만약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을 거예요.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당신의 선량함에 대한 확신만은 남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없어요.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버지니아로부터

-『세월』, 13-14면

마이클 커닝햄은 『세월』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적 사실을 토대로 소설 『델러웨이 부인』(1925)의 창작 과정을 재현한다. 단 하루 만에 한 여자의 일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도로 집필된 소설 『델러웨이 부인』과 동일하게, 『세월』은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어느 하루를 관찰함으로써

써 그 여자의 내면에 깃든 정열과 우울을 가늠하고, 과거와 미래를 통찰한다. 즉 버지니아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의 하루를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마이클 커닝햄은 『델러웨이 부인』을 집필하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하루를 『세월』에서 보여준다.

원작소설 『세월』은 실존인물인 버지니아 울프와, 그의 작품에 영향 받은 허구의 두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 각각의 삶을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있다. 울프 부인으로 명시된 버지니아, 그는 『델러웨이 부인』을 집필하고 있다. 브라운 부인인 로라, 그는 『델러웨이 부인』을 읽고 있다. 그리고 소설 주인공과 이름이 같아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불리는 클라리사, 그는 델러웨이 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¹³⁾ 이렇게 『세월』 속의 세 주인공 버지니아와 로라와 클라리사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사는 여성들이지만, 모두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소설로 엮여있다. 세 여성은 『델러웨이 부인』을 쓰면서, 읽으면서, 혹은 행위자(doer)로서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을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교감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뉴욕 시에 사는 클라리사의 경우, 그 여자 자신의 이름이 『델러웨이 부인』의 주인공 여성과 같을 뿐만 아니라 리처드, 샬리와 같은 주변사람들의 이름까지 책의 인물들과 동일하다. 클라리사의 하루는 바로 뉴욕 판으로 번안된 델러웨이 부인의 하루다.

소설 『델러웨이 부인』은 버지니아 울프가 1922-24년에 걸쳐 집필한 작품이며, 1925년에 출간됐다. 이 소설의 출간 전 제목은 'The Hours'였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이 거의 완성돼가던 1924년 여름, 'The Hours'는 '델러웨이 부인'으로 바뀌었다.¹⁴⁾ 마이클 커닝햄이 자신의 소설 제목을 'The Hours'로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¹⁵⁾

13) 영화와는 원작소설의 배경은 약간 차이가 난다. 원작소설에서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는 각각 1923년 런던 교외, 1949년 로스엔젤레스, 20세기 말 뉴욕 시에 사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14) 버지니아 울프의 1923년 6월 19일의 일기를 보면 *The Hours*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나오고, 이에 대해 “뒤에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이라는 제목으로 바뀐다.”라는 레너드 울프의 각주가 있다. 이 소설은 약 일 년 뒤인 1924년 5월 14일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으로 출간된다. 버지니아 울프, 박희진 역, 『어느 작가의 일기』, 이후, 2009, 117, 126면 참조.

『델러웨이 부인』은 영화 속 버지니아의 대사가 말해주듯 ‘한 여자의 인생을 단 하루를 통해, 바로 그날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준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델러웨이 부인』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플롯을 찾기는 어렵다. 이야기는 의식의 흐름과 그에 따른 심리의 연쇄적인 변화로 전개된다. 작은 외부의 자극으로 촉발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넘나든다. 마치 등장인물의 생각이 생중계되거나, 혹은 그들의 독백을 엿듣는 것 같다. 다음은 파티에 대한 델러웨이 부인의 내면의 소리다.

나의 조상은 한때 조지 왕조의 조신(朝臣)이었고, 나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사고계라면 덮어놓고 좋아하지. 오늘 저녁에도 집 안을 찬란하게 꾸며놓은 야회를 열지 않나.¹⁵⁾

그래 파티가 ‘네, 그러시겠지요. 맥의 파티는-맥에서 파티를 여는 의의가 어디 있지요?’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그것도 누가 이해해주리라고는 생각 못 하지만.) 이 파티라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라고. (...) 이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야. 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려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지?

아마 의식을 위한 의식인지도 몰라. 어쨌든 이것은 나의 천성인걸 뭐.

-『델러웨이 부인』, 191-192면

델러웨이 부인의 의식은 상원의원의 아내라는 외적인 자아와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내적인 자아로 분리돼 있다. 이러한 델러웨이 부인에게 파티는 그 여자의 내면에 상충되는 정체성들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이 소설의 말미에 이르면, 델러웨이 부인은 파티에서 시인 셉티머스의 자

15) 김상률, 앞의 글, 116면 참조.
16) 버지니아 울프, 나영균 역, 『델러웨이 부인』, 문예출판사, 2006, 8면.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인용문 뒤에 책 이름과 페이지만 명기하겠다.

살 소식을 듣는다. 소설 『세월』에 따르면, 버지니아는 자신의 소설에서 처음엔 델러웨이 부인을 대단치 않은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작정이었으나(『세월』, 130면), 다시 새로운 희생양을 찾게 된다고 했다. 그것이 셉티머스였다. 그의 자살소식을 듣자 델러웨이 부인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고통을 느낀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셉티머스는 바로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미 작가는 수년 뒤 우즈 강에 투신할 자신의 일을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셉티머스의 자살은 소설 『세월』에서 시인 리처드의 죽음으로 변주된다. 셉티머스가 전쟁의 폭력에 상처받은 인물이라면, 리처드는 유기(遺棄)와 소외, 에이즈와 정신병 등 전쟁 못지않은 현대 사회의 폭력에 희생된 인물이다. 리처드가 셉티머스와 동일하게 버지니아 울프의 분신이라는 것은 그가 죽을 때 버지니아가 레너드에게 남겼던 유서의 한 구절과 똑같은 말을 클라리사에게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세월』, 310면) 리처드는 셉티머스처럼 창에서 뛰어내려 죽는다.

마이클 커닝햄의 소설 『세월』을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을 하는 프롤로그 이후의 각 장의 소제목은 ‘울프 부인’, ‘브라운 부인’, ‘델러웨이 부인’이다. 울프 부인 장에서 버지니아가 『델러웨이 부인』을 집필하면, 브라운 부인 장에서 로라가 그 부분을 읽고, 델러웨이 부인 장에서 클라리사가 그 장면을 행동한다. 이는 영화 <디 아워스>에서 ‘델러웨이 부인은 직접 꽃을 사겠다고 했다(Mrs. Dalloway said she would buy the flowers herself).’라고 버지니아가 소설의 첫 구절을 쓰면, 다음 장면에서 로라가 책을 펼쳐 그 부분을 소리 내어 읽고, 다음 장면에서 클라리사가 “내가 직접 꽃을 사겠어(I think I'll buy the flowers myself).”라고 말하는 것으로 편집된다.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는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작가와 독자, 그리고 주인공이다.

한 세대 이상을 떨어져 있으며, 영국의 리치몬드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뉴욕 시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서로 연결돼 있다. 버지니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은 한 편의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며,

그 작품은 로라의 일상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일깨운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타고난 감수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 여성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읽으며 자아를 발견한다. 버림받는 아들 리처드는 엄마의 억압된 내면세계를 대신 표출하듯 시인이 되고, 동성애자가 되고, 그리고 정신병자가 됐으며, 엄마가 즐겨 읽던 소설의 한 인물처럼 자살한다. 리처드에 의해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클라리사는 운명처럼 이 시인을 돌보지만, 결국 그의 죽음을 보게 된다.

행복해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이 여성들은 파티에서 자신의 불행을 깨닫는 동시에, 예기치 않은 죽음과 맞닥뜨린다.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서 파티가 한창일 때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듯, 분신과도 같이 묘사된 버지니아의 새, 로라의 병든 친구, 클라리사의 옛 애인 리처드는 마치 죽음과도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주인공 대신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생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삶의 소중함은 죽음과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인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파티와 음식의 상징적 의미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세 여성의 일상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닮아 있다. 이는 영화에서 유사한 이미지들의 병치과 변주로써 표현된다. 세 여성은 모두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음식을 장만하고, 지인의 방문을 받고, 동성애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를 꿈꾼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와의 일상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다. 클라리사의 경우는 리처드가 사랑을 받는 쪽으로 설정돼 있으나, 리처드 또한 클라리사의 사랑을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파티’와 ‘음식’을 중심으로 영화에 나타난 주요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필자는 앞에서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주인공이 파티를 여는 것은 분열된 내면 의식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상징적 시도라

고 말했다. 세 여성에게도 파티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버지니아는 언니 바네사를 위해, 로라를 남편 댄을 위해, 클라리사는 옛 애인 리처드를 위해 파티를 준비한다. 이때 세 여성이 마련하는 파티의 음식은 자아의 확장, 즉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함축한다.

버지니아는 하녀에게 굳이 런던까지 가서 설탕에 절인 생강을 사오라고 시킨다. 설탕에 파묻혀 매운 제 맛을 잃어버린 생강절임은 답답한 시골 생활에 하루하루 무기력해지고 있는 버지니아 자신을 상징한다. 즉 설탕에 절인 생강과 그 여자는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로라는 아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를 만든다. 케이크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망가지기 쉬우며, 이는 상처입기 쉬운 로라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친구인 키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성들에게 케이크 만들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에 속한다. 그러나 그런 일도 로라는 힘겨워한다. 특히 밀가루의 아름다움에 취해 만든 첫 번째 케이크가 볼품없이 찌그러졌다는 것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일상에서 로라의 감수성이 심각하게 상처받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로라는 첫 번째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케이크를 만든다. 새로 완성된 케이크는 요리책의 견본 이미지와 똑같다. 이로써 로라는 생일 케이크로 제유된 ‘행복한 중산층 가정’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케이크는 브라운 부인이라는 로라의 성과 같이 브라운 색이며,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임부복 색깔과 비슷한 푸른색 크립 장식을 하고 있다. 노란색 꽃 장식도 있다. 케이크 위의 노란색 꽃은 남편이 선물한 장미꽃을 연상시킨다. 남편의 여성상이 투사된 로라의 외적인 모습과 요리책이 행복한 가정 음식의 전형으로 제시한 생일 케이크는 놀랍도록 닮아있다.

클라리사는 리처드를 위해 게 요리를 준비한다. 껍질은 단단하지만 속살이 연한 게는, 겉모습은 강해보이지만 속마음이 여린 클라리사를 상징한다. 성공한 출판 편집자이며 정자만 제공받아 딸을 낳아 키울 정도로 독립적인 클라리사는, 그러나 리처드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절망한다. 게가 단단한 껍질로 자신의 속살을 보호하듯, 클라리사는 겹겹이 껴입은 옷과, 두꺼운 빨테의 선글라스·알이 굵은 호박(琥珀) 귀고리와 커다란 목걸이·여러 줄의 팔찌

같은 과장된 액세서리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고자 한다. 그러나 한번 마음이 무장해제 되면 불안하고 복잡한 심경은 견잡을 수 없이 분출한다.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리처드의 옛 동성애인 루이스와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무너져 우는 모습은, 단단한 껍질로 위장했던 속마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견고한 외피로 억압된 클라리사의 욕망은 리처드의 죽음 이후, 동성애인 샬리와 키스를 하면서 외투를 벗고, 스스로 머플러와 목걸이를 풀어버림으로써 비로소 해방된다.

클라리사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버지니아도 호박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호박은 서양에서 ‘여신의 눈물’로 일컬어지는 보석이다.¹⁷⁾ 상처 입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지(樹脂)가 오랜 세월 땅속에서 굳어져 단단한 화석이 된 호박은 상처받고 응어리진 두 여성의 마음을 암시한다.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찾아온 로라는 진주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¹⁸⁾ 진주 역시 상처와 고통을 상징한다. 진주는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모패(母貝)가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체액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¹⁹⁾ 그래서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도 부른다. 주인공 여성들의 상처받은 마음은 호박과 진주라는 유기질 보석의 이미지를 빌려 가시화되고 있다.

세 여성이 각각 파티 준비로 분주할 때 뜻밖에, 혹은 시간보다 일찍 손님이 도착한다. 그들은 일찍 도착해서 서둘러 떠나가는데, 그때 주인공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원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는다.

버지니아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언니 바네사의 방문을 받는다.

-
- 17) 그리스 신화에서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은 아폴론의 태양 마차를 몰다 진노한 제우스의 벼락을 맞고 죽는다. 파에톤의 누이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다 강가의 포플러 나무가 됐고, 그녀가 흘린 눈물은 강으로 떨어져 호박(琥珀)이 됐다고 한다. 토마스 불빈치, 김이랑 역, 『그리스 로마 신화』, 시공사, 2007, 72-73면 참조.
- 18) 황영미는 로라도 호박 귀고리를 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영화에서 로라가 호박 귀고리를 한 장면은 없다. 그가 <스틸컷2>로 제시한 로라의 모습에서도 호박 귀고리는 찾을 수 없다. 황영미, 앞글, 302면 참조.
- 19) 이러한 진주의 형성 과정은 여성의 임신 과정과도 흡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는 태아(胎兒)를 닮은 보석이다. 로라가 다른 두 여성과 구별되게 호박 귀고리가 아닌 진주 귀고리를 한 이유는 그 여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이 ‘엄마로서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골생활의 단조로움에 질식할 것 같던 버지니아는 도시에서 분주한 일상을 보낸다는 바네사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초라함을 느낀다. 버지니아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런던에서의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로라는 이웃집 친구인 키티의 방문을 받고 당황한다. 자궁에 종양이 생긴 키티는 임신한 로라를 부러워하며,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없었다고 울먹인다. 행복해보였던 키티가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로라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클라리사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도착한 루이스의 방문을 받는다. 리처드의 동성애인이었던 루이스는 그와 헤어진 뒤 ‘자유’를 느꼈으며, 현재는 그들 모두가 젊은 날 한 때를 보냈던 웰플릿으로 돌아가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리처드를 만난 이후, 그를 돌보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클라리사는 이제 자신도 지쳐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성 정체성의 문제는 <디 아워스>의 중요한 모티브다. 영화에서의 동성애적인 코드는 버지니아에서 로라, 그리고 클라리사에게로 시간이 이동하면서 한층 적극적으로 묘사된다. 버지니아의 동성애적인 경향은 언니의 공감과 인정을 바라는 절박함 정도로 해석되는 반면, 로라에게는 억압된 내면의 표출과 함께 불행한 여성친구에 대한 깊은 동질감으로 표현된다. 엄마와 엄마 친구 키티의 키스 장면을 목격한 리처드는 성인이 되어 동성애자가 된다. 그는 클라리사를 사랑하면서도 루이스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클라리사 또한 리처드를 한 때 사랑했지만, 현재는 동성애인인 샬리와 동거 중에 있다. 영화 속에 각기 다르게 변주되는 동성과의 키스 장면은 고정된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유를 열망하는 주인공들의 내면의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영화 <디 아워스>에서 음식과 손님, 키스 같은 중심 이미지들은 세 번에 걸쳐 변주된다. 꽃, 시계, 액세서리 같은 소품들 역시 반복되고 변화하며, 이들 모두는 ‘파티’라는 상징으로 집중된다. 영화 <디 아워스>에서 파티는 세 여성이 각자의 억압된 욕망을 인식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4. 어긋난 사랑과 죽음, 그리고 자유

영화 <디 아워스>를 일관하는 주제는 죽음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살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개의 죽음이 번주되고 있다.

처음에 버지니아는 집필 중인 소설의 주인공인 델러웨이 부인이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자 했다. 남들이 보기엔 별 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주인공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던 버지니아는 산책 중에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새를 발견한다. 그는 나뭇가지를 엮어 침상을 만들고 새를 누인다. 그리고 노란 장미를 꺾어 조카 안젤리카와 새의 침상을 장식한다.

버지니아: 새 아가씨가 장미꽃을 좋아할까?
 안젤리카: 어떻게 여자인줄 알아요?
 버지니아: 암컷이 몸이 더 크고 색이 진하지.
 안젤리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버지니아: 죽고 나면?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간단다.

-<디 아워스>

버지니아는 생명이 다해가는 새 옆에 눕는다. 그 모습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는 순간, 새와 버지니아는 한 몸이 된 것 같다. 영화에서 이 모습은 로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새가 서서히 죽어가듯, 로라도 숨 막히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생명력을 소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죽은 새의 침상을 장식한 노란 장미는 로라를 위해 남편 덴이 사온 장미 꽃다발을 연상시킨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한 사랑의 장미가, 정작 그의 아내에게는 조화(弔花)나 다름없었다.

노란 장미는 로라가 두 번째로 만든 케이크 위에도 있었다. 초콜릿 케이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라 자신을 상징한다면, 그 위를 장식하는 노란

색 크립 장미는 죽은 새의 둥근 침상을 장식하던 장미처럼 죽어가는 자신을 위한 애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케이크를 만든 뒤, 브라운 부인 로라는 브라운 색 옷을 입고 책과 약병을 챙겨 들고 나간다. 그가 차려입은 외출복의 색이 초콜릿 케이크의 색깔과 유사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는 시계의 초침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호텔 방에 누워 자살을 생각한다.²⁰⁾ 말쑥하게 차려입은 외출복과는 달리, 침대 밑에 벗어놓은 구두는 험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낡아있다. 우즈 강에 몸을 던진 버지니아가 익사하기 직전 신발이 벗겨졌던 것 같이, 로라는 낡은 구두를 벗음으로써 죽음을 준비한다. 그는 4개나 되는 약병을 침대 위에 늘어놓고 마지막으로 『델러웨이 부인』을 소리내어 읽는다.

로라: 델러웨이 부인은 자신에게 묻는다.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숨 막히는 삶을 끝낸 후에도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간다면 미련이 남을까? 그걸로 세상도 끝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까?

-<디 아워스>

버지니아는 별 것 아닌 이유로 델러웨이 부인을 죽게 만들 작정이었다. 로라도 남 보기엔 특별한 이유 없이 죽으려고 한다. 그 여자에게는 자신을 더없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처럼 차오르는 갑갑한 일상에서 이미 천천히 익사되고 있었다.²¹⁾

20) 원작 『세월』에서 로라는 단지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은밀하고 조용한 장소’로서 호텔에 가는 것으로 나온다. 여기서 로라가 책을 읽는 호텔방은 이른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을 상징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그 여자가 여러 개의 약병을 챙겨 호텔방에 들어갔다는 정황에 미루어 자살을 결심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클라리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때 확인된다.

21) 이러한 로라의 심리상태는 영화에서 침대 위로 물이 차오르는 악몽으로 표현된다. 베티 프리단은 『여성의 신비』에서 1950년대 미국의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중산층 가정’의 여성들이 겪는 우울에 대해 주목했다. 그들은 가정주부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조차 묻기 두려운 내면의 질문과 마주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 베티 프리단, 김현우 역, 『여성의 신비』, 2005, 이매진, 54면 참조.

버지니아가 델러웨이 부인이 아닌 다른 희생자를 찾기 시작하는 장면은 로라가 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 때 로라에게 유난히 맑은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어린 아들 리치는, 다음 장면에서 에이즈와 정신병으로 피폐해진,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서늘하게 맑은 시인 리처드와 겹쳐진다. 클라리사가 돌보던 리처드가 바로 로라의 아들이었다.

아들을 버린 로라는 흔히 여겨지는 것처럼 다른 남자와 바람나 도망간 것도 아니었다. 로라는 캐나다의 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다고 한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간 여자²²⁾가 이국땅의 도서관에서 다만 책을 관리하며 살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남편 댄의 사랑과 로라의 행복은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었다. 다음은 아들의 부고를 듣고 찾아온 로라가 클라리사에게 한 말이다.

로라: 남모르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호텔방에 들어가 죽진 못하고 결심만 하게 됐죠. 둘째를 낳는 즉시 가족을 떠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를 끝내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떠났어요. 편지만 남긴 채. 그 후 캐나다에서 사서로 일했어요. 내가 한 일을 후회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좀 편할 수 있겠지만, 부질없는 짓이죠. 그건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었으니까. 하지만 다 변명일 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됐어요. 죽음 같은 현실보다 삶을 선택한 것뿐이지만.

-<디 아워스>

클라리사는 레너드가 버지니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편집 일을 하면서 리처드의 작품 활동을 돕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의 감수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리처드는 그 사랑과 헌신을 서로에 대한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클라리사가 보는 앞에서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셉티머스처럼 투신자살을 한다. 자신이 죽음으로써만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나아가 클라리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클라리사의 사랑과 리처드의 행복 또한 어긋나 있었다.

22)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로라는 자연스럽게 헨리크 입센(Henrik Ibsen)의 『인형의 집』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여주인공을 연상시킨다.

버지니아에게도 사랑은 구속이었다. 그에게는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를 후원하고 보호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에게 리치몬드에서의 요양생활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 여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었다.

버지니아: 나도 이 고요함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리치몬드와 죽음, 둘 중에 서라면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어요.

-<디 아워스>

삶과의 투쟁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다고 그 여자는 남편 레너드에게 호소한다. 투쟁과 평화, 구속과 자유, 그리고 죽음과 삶. 일견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쪽 없이는 나머지 다른 한 쪽도 무의미하다. 투쟁 없이 주어진 평화는 리치몬드에서의 삶처럼 그저 적막할 뿐이며,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진정한 삶이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다.

그 후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1941년 어느 봄날, 버지니아는 이 말을 증명해 보이듯 우즈 강으로 걸어 들어간다. 병든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구속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삶을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알았죠. 마침내 그걸 깨닫게 되었고 삶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접을 때가 되었군요. 레너드. 우리가 함께 한 그 세월. 소중한 순간들. 영원히 그 사랑과 함께 간직할게요. 우리의 시간들도.”

영화는 버지니아 울프의 유서 마지막 구절을 독백으로 들려주면서 끝난다. 화면 가득 삼월의 햇빛에 찬란히 빛나는 강물은 죽음을 넘어 씬 없이 갈망하던 그 여자의 자유를 상징한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영화 <디 아워스>에 나타난 이미지의 상징성을 원작소설 『세월』과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과의 상호연계성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영화의 주인공인 버지니아, 로라, 클라리사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지만, 소설 『델러웨이 부인』으로 연결돼 있다. 버지니아는 소설을 집필 하며, 로라는 그 소설을 읽고, 클라리사는 소설의 주인공인 델러웨이 부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영화는 교차편집으로 마치 세 여성이 동시에 같은 날을 사는 것처럼 보여준다. 이때 나타나는 영상 이미지의 유사성과 반복성은 이 영화의 가장 큰 개성으로, 필자는 이 이미지들의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주인공의 정서와 심리상태를 알아보고자 했다.

세 여성이 준비하는 파티는 델러웨이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분열된 내면의식을 서로 연결하고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일종의 상징적 의식이다. 이러한 파티를 위해 세 여성이 마련하는 음식은 자아의 확장, 즉 그들 내면의 심리상태를 함축한다. 파티의 방문객은 주인공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원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편에 흐르는 동성애적인 코드는 고정된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유를 열망하는 주인공들의 내면의식을 상징한다.

영화 <디 아워스>를 일관하는 주제는 죽음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살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그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면서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죽음이 변주되고 있다. 주인공들에게 죽음은 어긋난 사랑에 대한 자유를 의미하며, 삶의 소중함은 죽음과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인식된다. 이것은 원작소설 『세월』의 주제이자,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의 주제이기도 하다.

영화 <디 아워스>의 가장 큰 미덕은 영상 이미지의 병치와 변주를 통해 주인공인 세 여성의 같거나 다른 정서와 심리상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영상 이미지의 상징성은 영화를 보다 심도있게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할 것이다.

[ABSTRACT]

Symbolism of the Image in *The Hours*

Park, Minyoung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e original of *The Hours* directed by Stephen Daldry is a novel, *The Hours*, by Michael Cunningham. The novel version of *The Hours* includes an existing character, Virginia Woolf, and two of fictitious characters influenced by his work, and describes their lives. This paper will study the symbols of death and party expressed in *The Hours* through its original, Cunningham's *The Hours*.

The film shows a day that three women live through cross editing. Mrs. Wolf is writing Mrs. Dalloway. Mrs. Brown is reading Mrs. Dalloway. And Clarissa whose nick name is Mrs. Dalloway is living the life that Mrs. Dalloway lives. Virginia Woolf's novel, *Mrs. Dalloway*, is not only the basic text of the original of the film version of *The Hours*, but also links between the three women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As in the novel, *Mrs. Dalloway*, in which Clarissa prepares a party, the three women begin the day with preparing their parties. They cook, have their friends invited, kiss the same sex, and long to leave for different places. The three women have lovers who they love and who love and protect them, but they are not contend with their daily lives. So, they dream of different places.

The food that the three women cook symbolizes the expansion of one's identity and in fact, symbolizes their inner states. The invitations allow the three women to look back on themselves, and realize what they truly want. The gay kiss in the film implies a departure from daily life.

The main theme of the film, *The Hours*, is death. The film starts with showing the suicide of Virginia Woolf and ends with showing it again. And several deaths happen between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three women witness different deaths to paradoxica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like Clarissa in the novel, *Mrs. Dalloway*.

Real life comes after death. Death is portrayed as the only escape from restrictions of daily life that are more hopeless than death itself. It also symbolizes the desire of the three women for freedom.

Key words : *The Hours*, *Mrs. Dalloway*, Virginia Woolf, symbolism, party, food, death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마이클 커닝햄, 정명진 역, 『세월』, 생각의 나무, 1999.
버지니아 울프, 나영균 역, 『델러웨이 부인』, 문예출판사, 2006.
스티븐 달드리, <디 아워스>, 파라마운트 픽처스, 2002.

□ 단행본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196면.
나이젤 니콜슨, 안인희 역, 『버지니아 울프: 시대를 앞서 간 불온한 매력』, 푸른숲, 2006.
박희진, 『버지니아 울프 연구』, 솔출판사, 1994.
버지니아 울프, 오진숙 역, 『자기만의 방』, 솔출판사, 1999.
버지니아 울프, 박희진 역, 『어느 작가의 일기』, 이후, 2009, 177, 126면.
베티 프리단, 김현우 역, 『여성의 신비』, 이매진, 2005, 54면.
송희복, 『영상문학의 이해』, 두남, 2002, 47-76면.
태혜숙, 『버지니아 울프: 여성/모더니티/글쓰기』, 건국대학교출판부, 1996.
토마스 불빈치, 김이랑 역, 『그리스 로마 신화』, 시공사, 2007, 72-73면.
허마이오니 리, 정명희 역, 『버지니아 울프 : 존재의 순간들, 광기를 넘어서 1·2』, 책세상, 2001.

□ 논문

- 고현철, 「소설 『디 아워스』와 영화 <디 아워스>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과 그 해석」, 『문학과 영상』 8-3, 2007, 39-60면.
곽현주, 「버지니아 울프의 페미니즘과 여성의 글쓰기 연구: 『델러웨이 부인』과 『디 아워스』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상률, 「“울프와 함께 춤을”-세 예술가의 텍스트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와 상호텍스트성-」, 『문학과 영상』 6-2, 2005, 107-133면.
김정, 「내포에서 외연으로: 소설 『시간들』에서 영화 <디 아워스>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9-1, 2003, 193-217면.
박민영, 「<디 아워스>의 오프닝 시퀀스 연구」, 『영화연구』 59, 2014, 157-183면.
송희복, 「메타비평, 그 논의의 다양성과 양식의 문제」, 『국제언어문학』 9, 2004, 173-198면.

- 이남희,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영화로 생각하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283-299면.
- 이상운, 「영화와 주제음악의 형식적 관계성에 관하여: 영화 <디 아워스>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40, 2010.
- 이지아, 「스테판 달드리 의 『디 아워스』에 나타난 페미니즘」.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정규환, 「문학과 영상의 밀월을 돌아봄」, 『영미문학교육』 5, 2001.
- 정명희, 「다시 쓰는 『델러웨이 부인』」, 『제임스 조이스 저널』 9-1, 2003, 219-239면.
- 정현숙, 『영화로 이해하는 윌리엄 포크너와 버지니아 울프 - <시민 케인>과 <디 아워스>」, 『영미어문학』 82, 2007, 51-57면.
- 황성찬, 「지속과 순간의 영화적 변용: <디 아워스>와 <매그놀리아>에 나타난 시간의 형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7.
- 황영미, 「읽기와 쓰기의 상호텍스트성 교육 연구-마이클 커닝햄의 『세월』과 영화 <디 아워스>를 중심으로-」, 『사고와 표현』 9-1, 2016, 293-313면.
- 황진희, 「심리변화에 따른 음악의 특징: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논문, 2014.
- 황진희 외, 「영화 <디 아워스(The Hours)>에서의 인물심리와 화음진행의 상관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1, 2014, 678-685면.

이 논문은 2016년 06월 30일 접수되어 07월 29일까지 심사받아 08월 5일 게재 확정됨.

